



왜 일해야 하는 걸까요?

3. 일은 왜 이리 고달픈가요?

Opening Talk

오프닝 토크



사례 1

크리스천인 L 양은 화장품 회사에서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가 일하는 회사는 기발한 아이디어, 실적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서로의 등에 칼을 꽂을 틈만 엿보는 분위기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서 동료의 말을 거침없이 맞받아치기도 하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납게 맞서기도 했다. 그랬더니 다들 그녀를 조심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어느날 그녀는 ‘내가 정말 이래도 되나’라는 죄의식이 들었다. 결국 그녀는 신앙적 양심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무기를 다 내려 놓기로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들이 그녀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세계 나오지 않고 친절하게 하다 보니 자신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직장에서 바보가 되어 버린 느낌이 들었다.’

사례 2

U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독교인 사장이다. 한 업체에 납품하는 일이 잘 되어 계약을 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거래 업체가 세금 문제 때문에 실제 계약서의 내용과 거래 내용을 다르게 하자고 요구해 왔다. 편의를 봐주면 자신들은 몇 년 동안은 조건 없이 U 씨의 회사와만 거래를 하겠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협약서를 쓰겠다고까지 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다. 또 세금으로 다 내는 것 보다는 절세를 해서 좋은 일에도 쓸 수 있으니 융통성 있게 하자고 했다.

사례 3

영업부에서 일하는 N 씨는 지난 3개월 동안 다른 부서와의 판매 실적 경쟁 때문에 야근과 주말 근무로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이번에는 승진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대리점 한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N 씨는 다급해진 나머지 모든 책임과 패널티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하고, 본사에 어떤 보고가 올라온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해놓은 상황이다. N 씨는 주말날 자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다.

(Tip. 모든 질문은 한꺼번에 읽고, 각자 원하는 질문에만 답하게 해주세요.
질문은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주세요.
Biblical Point 나눔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 위의 사례들을 보며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누어 보자.
- 현재 각자의 일터에서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문제는 무엇인가?
-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결과는 어떠했는가?

Biblical Point

바이블 포인트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세계화ⁱⁱ

일과 일터가 왜 이렇게 고달프게 되었는가? 그것은 결국 인간의 죄 때문이다. 최초로 죄 지은 인간들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는 창세기 3장은 여간 흥미로운 것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 나체라는 사실이 두려워 숨는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고 하신 ‘벌거벗음’을 수치로 여기는 진리의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 하나님과 가치관이나 의견을 달리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최초의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미 죄의 효과가 독약처럼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고 죄성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인간의 죄는 일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이게 되었고(창 3:18), 죄가 인간의 양심과 하나님의 형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일터 곳곳에 구조적 문제, 관계적 어려움, 부패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일터는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타락된 면들을 다루면서

살아야 하는 곳이 되었다. 당연히 고통이 따르게 된다.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를 그냥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채소라도 먹으려면 때로는 가시 때문에 흘리는 피와 눈물도 각오해야 하는 곳으로 변했다.

흥미로운 것은 여자의 임신하는 ‘고통(yizavon)’과 남자의 먹기 위한 ‘수고(yizavon)’가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정도의 벌을 여자와 남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다. 일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자가 해산하며 지르는 소리와 고통을 들어보면 된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또한 세계화가 되었다. 폴 스티븐스는 세계 자본주의의 3가지 근본적인 문제로 ‘가난의 세계화, 과도한 자원 사용의 세계화, 도덕적 진리에 개의치 않은 경제의 세계화’를 꼽았다.¹¹ 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경제와 일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냥 일터에 가서 그곳의 문화를 배워가며 ‘아!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정도 생각하고 죄만 짓지 않도록 노력하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문화와 모습으로 바꾸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일터야말로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1차적 미션 필드이며 영적 전쟁의 원산지인데 말이다.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물건을 파는 방식, 경영을 하는 원칙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한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일터를 회복시켜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모두가 유익을 얻는 세상으로!

일터는 영적 전쟁터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물건을 파는 방식,
경영을 하는 원칙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야 한다.

느헤미야가 겪은 일을 통해 그가 어떻게 영적 전쟁터의 일터에서 살아남았는지를 살펴보자.

(1) 느헤미야가 겪은 일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왕의 술 관원’이라는 잘 나가는 고위직을 보유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 자신의 나라 땅인 초라한 지역 유다의 총독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는 일에 자원한다. 고대



근동에서 성벽 없이는 아무런 보호를 기대할 수가 없다. 담벼락과 대문이 부서진 집에 사는 것과 같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해나가면서 많은 난관에 부딪친다.

당시 그 지역의 권력과 이권을 놓고 헤게모니와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반대파들은 유대인들이 성벽건축을 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 행위라고 고발한다. 성벽을 건축하는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비웃음으로 심리적 위축전을 편다(느 4:1-3). 공사 현장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겠다는 협박도 했다(느 4:8, 11). 느헤미야가 모반 행위를 꾀한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뇌물로 사람을 사서 하나님의 예언처럼 꾸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느헤미야가 숨도록 예언함으로 느헤미야를 범죄하게 하고 그의 신임을 떨어뜨리려는 고도의 전략을 꾸미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내적 분열까지 일어난다. 흉년이 들어 살기가 어려워지자 일부 부유층 유대인 귀족들과 관료들은 율법에 금기된 사항임에도(출 22:25) 동족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느 5장). 느헤미야는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꾸중하며 그들의 파렴치한 경제활동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에 직결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이처럼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음모, 술수, 속임수, 사기 저하와 낙담, 협박, 유혹, 비난, 비웃음, 육체적 위협, 뇌물거래, 심리적·정신적 압박, 속출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거짓 소문들, 내적인 불만과 문제 해결에 대한 즉각적 요구, 기회주의자들의 부도덕함 등을 다 겪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겪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은 분명 일어나고 있다.

(2) 느헤미야의 대처 방안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대처한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이 해야 할 일의 규모와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야간 탐사를 통해 성벽의 무너진 정도, 해야 할 일의 규모, 필요한 재정, 동원해야 할 인력 등의 파악을 마쳤다(느 2:11-15).

둘째, 자신이 이끌고 함께 일할 자들을 설득하고 사기를 북돋았다. 무조건 ‘따라와라’가 아니라 그들의 안보와 생존에 꼭 필요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점을 알렸다(느 2:17-18). 일터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일의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당신의 상사는 부하 직원들에게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충분히 해 주고 있는가? 당신은 상사로서 직원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가? 직원들에게 소통을 잘하고 목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철저한 방어와 대책으로 대처했으며 뛰어난 조직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인간의 현실적인 노력 사이에 이원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100%와 인간의 최선이라는 100%를 통해 일을 추진했다. 육체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한 손으로는 일하고 다른 한 손은 무기를 잡도록 했으며 각 사람에게 일을 분담하여 조직력 있게 움직였다. 각각의 역할 분담도 철저히 했으며 책임 소재도 분명히 했다(느 3장). 그를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 믿음의 소유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넷째, 하나님의 정의를 철저히 실천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이 취한 불의의 이득을 백성들에게 다 돌려주도록 주장하여 실천케 했다. 일터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어

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섯째, 희생의 본을 보였다. 그는 모든 운영을 백성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함에도 자신의 월급으로 많은 것을 충당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이용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여섯째, 기도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간다. 곳곳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가 어려움을 기도로 헤쳐 나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느 2:4, 20; 4:4-5, 9; 6:9 등). “우 리 하나님이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 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시옵소서 ...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 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등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거침이 없다. 이것은 그가 매사에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신뢰했는가를 잘 보여 준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철저한 현실주의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간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3) 우리의 대처 방안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이지만, 죄가 우리의 일터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러기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터에 존재한다. 일터의 일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느헤미야 시대와 우리 시대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다르겠지만 위의 원리들은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 특히 현실주의에 뿌리박은 그의 대안들은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당신이 실직했다고 하자.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수십 통의 이력서를 쓰고,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수십 번 거절을 당해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iv} 느헤미야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렸다면 성벽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당신이 사업을 한다고 하자. 투자자들을 만나야 하고 가끔 그 과정에서 수모도 당할 수 있고, 힘든 과정들을 겪어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것이 현실이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 준다. 그가 한 기도의 고백을 들어 보자: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느 5:19; 13:22, 31). 이것은 느헤미야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희생과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과 그의 동료 유대인들을 위해 한 것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요청한 것이다.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며 직원, 동료, 고객, 가족, 일반 대중 등 나의 일에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을 구할 수 있다. 우리도 당당히 하나님 앞에 매일 저녁, “하나님 내가 오늘 직원과 동료와 고객을 위해 한 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때 궁극적으로 영적인 축복의 혜택을 누리지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다(“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다.

사탄이 현재 편안하게 있는 이유는 사회 속에, 일터 속에 그다지 큰 도전이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마치 아무일 없다는 듯이, 그저 조용히 일해서 돈만 벌면 다라는 듯이 평화롭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여호와 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그가 하신 일은 생각지도 않는 자들**’(사 5:12,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과감하게 지적한다.

일터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 우리가 있음으로써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인격적인 대우가 있어야 하고, 더 웃음이 있어야 하고, 더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하고, 부조리는 물러가야 하고, 부패적인 요소는 뿌리 뽑혀야 하고, 더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 하고, 정의가 실천되어야 하며, 더 성실한 모습이 있어야 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인 일터에서,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일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면 안 된다.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서로 힘을 모아 격려하며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 위의 글을 읽고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 각자의 일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죄의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느헤미야의 개혁을 보며 나는 현재 직장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는지 나누어 보자.

-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겼다. 나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과정에서,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FWIA Voice

요약정리



죄가 우리의 삶 전체에 번져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구조 속에는 구조적인 악과 죄의 모습들이 배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엉덩퀴와 가시를 만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물러나서는 안되고 싸워 승리하여 일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삶과 일은 위대한 것입니다.

i 신동열, 「소명에 답하다」 (예수전도단, 2013), 22에서 사례를 응용한 것임.

ii 폴 스티븐스, 「일의 신학」 (도서출판 CUP, 2014), 44에서 제목을 따온 것이다.

iii Ibid., 46.

iv TOW Project,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 (느1:1-7:73)"

<http://www.theologyofwork.or.kr/ko-old-testament/ko-ezra-nehemiah-esther/ko-nehemiah/ko-restoration-of-the-wall-of-jerusalem-nehemiah-11-773>.

FWIA BUCKET

